

회장 인사 말씀



중시조 탄신 800주년 추모제를 추진하며

전국에 계신 60만 현종 여러분!
전례없이 지루

한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폭염이 내리
죄는 次第에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총회에서 3년 임기의 大宗
會長에 취임한지도 어언 4개월이 지났
음에도 변변한 인사 한 번 못 드린 점
본 지면을 통하여 사과드립니다.

각 파종회장님을 비롯하여 선후배 현
종 여러분의 성원으로 本會의 운영은
잘 되어가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리며
앞으로 해야 할 일로 명년 2012년(壬辰
年)은 우리의 중시조(方慶) 할아버
님의 탄신 800주년이 되는 해로 全國
에 계신 우리 전 종인들이 힘을 합하
여 거족적인 탄신 기념 추모행사를 가
져보자는 여러 현종님들의 의견에 따
라 조출하나마 정성을 다한 추모제가
될 수 있도록 개최하자는 결정을 보았
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현종님

들께 먼저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시조어른
내외분께 효도 한 번 드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우리 한 번 더 뭉쳐봅시
다. 얼마전 TV를 통하여 화제가 되었
던 전철 내에서 한 노인 어
른께서 아기가 예쁘다고
쓰다듬었다가 짧은 아기
엄마로부터 봉변을 당
하셨다는 뉴스로 세간의
우리 국민 대다수가 큰 충
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됩니

다. 정말 걱정이 앞서고 나라의 장래가
의문스럽습니다. 절망적인 걱정을 하
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 사는 사회가
발전 할수록 개인주의는 더욱더 각박
해지고 자기중심적이라는 현실로 볼
때 그런 행동을 한 아기엄마를 이해
할 줄 아는 여유도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금덩이 같은 내 자식 한테
왜 남이 손을 대느냐는 이기주의! 내

孝는 百行의 根本임을

것 또는 내밖에 모르는 지금의 현실을
어느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이런 현실
에서 부모님과 조상님에 대한 존경심
고취의 기회 부여로 삼고 선조님께 대
해 효도하는 심정으로 승조목족 정신
함양과 선조님에 대한 현양사업, 나아
가 일족 단결과 화합의 차원에서 정결
한 추모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중
시조 할아버님은 양반의 고장 안동 땅
에 출생하셔서 고려국에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89세에 종하시어 안동 땅에
유택을 마련하셔 오늘에 이르셨으니
우리 60만 종친과 안동 출신

모든 분들과 힘을 합한 추
모제가 되리라고 확신
합니다. 方慶 할아
버님의 탄신 800주년
추모제 추진위원회를 설
치하고 안동시와 경상북도
청을 방문하고 추모제 개최에 대
한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 안동시와
대종회가 공동 주최하고 충렬공 김방
경 탄신 800주년 추모사업 추진위원회
가 주관하기로 협의 하였으며, 경상북
도에서는 학술, 문화, 행사비에 대한 적
정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지
역구 국회의원님과 지방의회 의원님들
께서도 호의적인 약속을 하였습니다.
학술회의 발표장소 선택 문제로 고심

하였으나 안동소재 국학진흥원으로부터
협조도 약속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본 행사 추진이 잘 진행되
고 있사오니 전국에 계신 우리종친 모
두가 적극 협조하여 우리가 부담하여
야 할 경비 조달 문제가 쉽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
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부모 조상에
대한 효심을 한층 높여 보자고 감히
제안 드리겠습니다. 혹여 지난 여러해
동안 우리 종회 운영에 매끄럽지 못한
점에 심기가 편치 못하신 여러 현종님
께서도 이기회를 통하여 모든 섭섭함
을 말끔히 잊어버리시고 함께 동참하
여 주실 것을 거듭 권고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프로그램 작성
에 참여 하시고 협조하여주시는 여러 선
후배 종친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행사가 아직은 갈 길이 멀고 먼 길
이오니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참여하시어 도와주실 것을 본 지
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부
탁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전국에 계신 현종 여러분! 여름철 장
마와 무더위 잘 이기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11년 8월 일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봉희 올림

충렬공 탄신 800주년(2012년) 추모제전 추진 경과 보고

충렬공 탄신 800주년(2012년) 추모제전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기에 그간의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추진내용

1. 최초 추진위원회 개최 2009년 상반기부터 추진회의를 구성하고 회의를 거듭하면서
계획을 세워 추진중 회장단 회의에서 추모행사가 임박하면 간단히 실행하기로 하고
추진회의를 해체함

2. 금년도 추진내용

가. 시안준비 및 고문, 회장단회의 토의 (05. 11)

2009년 시안을 회의에서 토의한 결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시행 할
경우 행사를 확대하기로 결의

※ 1차 시안 (05. 20)

행사 규모 : 275,000,000원

행사종류 : 고유제, 추모행사, 학술·무술행사, 영상물제작

나. 이사회의 (06. 03)

1차 시안을 이사회의에서 토의한 결과 대종회 부담금을 1억원(대종회 4천만 원,
현성금동 육천만 원) 이내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 안동시와 협의 하도록 함.

※ 2차 시안

이사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총 268백만 원(대종회부담 일억원)을 계상 2차계획 수립함.

다. 06.15 대종회 회의실에서 제1차 추진회의 개최 원안을 결의함.

라. 안동시 방문 안동시장 면담

안동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과 안동시 주관행사로 격상함을 확약 받음. (당일 국학진흥원을 방문 학술행사관계협의)

※ 3차시안 (0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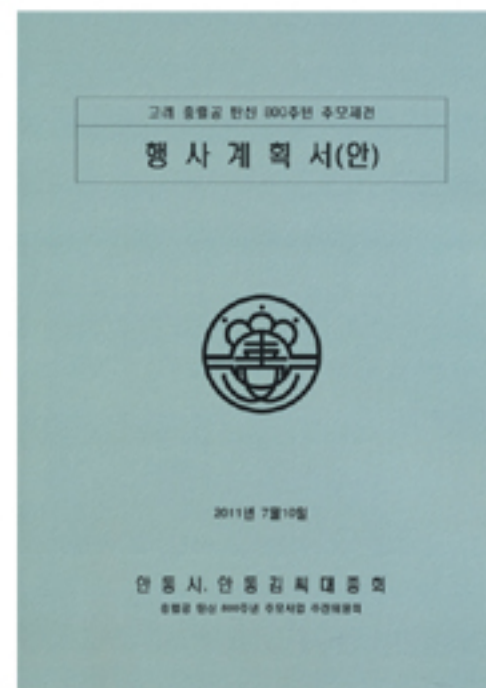
국궁행사를 추가하여 행사규모를 3억8천7십만 원으로 하고 각 행사규모 확대

마. 07.22 경상북도 문화재과를 방문 협의하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바. 07. 26 안동시 문화관광과를 방문하여 3차 시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조는 하겠으나 타
행사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3. 앞으로의 추진 계획

대종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시,도의 협조를 받아 행사를 개최하되 예산의 지원에 따라 행사를 축소할 것이며 추진
회의의 활성화로 행사의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임.



제3회 안동김씨 전국 청·장년회 체육대회 개최 공고

안동김씨 전국 청·장년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지역 종친회
별로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일시 : 2011년 10월 8일(토요일)
오전 10:00부터
2. 장소 : 증평공업고등학교 교정
(충북 증평군 증평읍소재)
3. 주최 : 안동김씨대종회
4. 주관 : 증평종친회 청·장년회
(회장:김태복010-5498-1345)
5. 내용 : 배구(9인제), 400m릴레이
6. 대회참가신청 : 2011년 9월 20일까
지 대종회로 신청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증평종친회
청·장년회 김태훈(010-5468-2904)에
문의

<안동김씨대종회>

大宗會 人事

(按) 弘植, 在均 大宗會 理事를 免함
(開) 相明 大宗會 顧問에 推戴
(按) 一成(默), 在雄, 璇會 (翼)永植
(書) 敦永 大宗會 理事에 任함
이상 2011년 7월 1일자.

서운관정공파 증영의정공 휘 홍도 사적비 건립 (書雲觀正公派 贈領議政公 諱 弘度 事蹟碑 建立)



서운관정공파 종중 이사장 김재준(陽堤 金在俊)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소재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90호 묘역입구에 제7세손 증영의정공 휘 홍도(諱 弘度, 1524~1557)의 사적비를 건립하고 지난 6월18일 대종회 김봉회(金鳳會) 회장을 비롯한 경기도 광주지역 기관장과 내빈 및 종원 120여명을 모신 자리에서 제막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이날 식은 오전 9시 후손들만이 공의 묘역에서 고유제를 지낸 후 낮 12시 식순에 따라 사적비 건립경과보고, 이사장 인사말, 대종회장 축사, 축시낭독과 제막식 및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

공의 부친은 동고공 김로(東庫公, 諱 魯, 1500~1547)이시고, 어머니는 한평군 이성언(李成彦)의 따님이시며, 조부는 유연재공 김희수(悠然齋公, 諱 希壽, 1475~1527)이시다.

공은 명종원년(丙午, 1545)에 진사장원을, 명종3년(戊申, 1547)에 문과장원을 하였고, 사간원 정언과 이조좌랑, 사가독서, 의정부 검상을 거쳐 청주목사에 이르렀으며, 세자의 경서강론을 담당하셨다. 명종 10년(乙卯, 1555)에는 영남지방에 왜구(倭

寇)가 크게 발호하여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하니 토벌군의 감군 어사로 나아가 군을 감찰하였고, 명종11년(丙辰, 1556) 공이 사(司)에서 지은 선시선종(善始善終)의 글제로 독서당(讀書堂)의 관원에게 책문(策問)하고 상계는 도에 의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명종 즉위년 척신(戚臣) 대운(大尹, 윤원로)과 소윤(少尹, 윤원형) 형제간 권력투쟁으로 소윤이 대운을 숙청하면서 발생한 을사사화(乙巳士禍, 1545)와 '양재역 벽서사건'(丁未士禍, 1547) 등으로 많은 사람(士林)이 화(禍)를 당하였다. 그 후 윤원형이 정사를 독단으로 농단하고 첩(鄭蘭貞, ?~1565)을 정처(正妻)로 삼아 공과 크게 대립하게 되었다. 1557년 공이 이를 탄핵(?)하려 했으나 김여부, 김백균, 조덕원 등의 무고(誣告)로 갑산(甲山)에 귀양 가 1557년 12월 28일 적소(謫所)에서 졸하셨다.

이후 공의 묘는 1545년에(양주 별내면 문개곡)에 모신 초취 평산신씨와 합폄했고, 1550년 <서울 반대방>에 모신 재취 한산이씨를 1938년 문개곡으로 천묘하여 3위 합폄한 후, 1967년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구세

거지 묘역에 모신 3취 평산신씨로 천묘하여 4위 합폄하였으나 1985년 중부고속도로 건설로 부득이 현 문화재묘역으로 재 천묘하였다.

공의 후손은 하당공(荷堂公, 諱 瞻)과 몽촌공(夢村公, 諱 ?) 두 분으로 하당공은 초취 평산신씨가, 몽촌공은 재취 한산이씨가 낳았으나 삼취 평산신씨는 무사(無嗣)하였다.

공의 비문은 의정부 우의정 양천인 허목(尾? 許穆, 1595~1682)이 숙종3년(丁巳, 1677)에 찬(撰)한 것으로 1978년 최초로 광주 구세거지 묘에 입비한 후 1985년 현 문화재묘역으로 이설했으나 규모(4尺)가 작고 한문만으로 되어 있어 문화재묘역을 찾는 학자들과 내방객이 보기가 어려워 문의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한문과 한글을 병기하고 공의 관직에 맞는 규모(8尺)의 사적비를 신설하기 위해 2010년 종중사업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9월에 착수하여 약 9개월여 만에 완공하게 되었다. 공의 사적비문(事蹟碑文)과 건립추기비문(建立追記碑文)은 현 이사장이 의관정재(衣冠整齊)하고 육필(肉筆)로 일일 100자씩 약 1개월에 걸쳐 정성을 다해 썼고 감수는 김돈영(金敦永) 부이사장과 김상호(金詳浩)가 했다. 예산은 약 5,200만원으로 비의 제작과 입수(立塹)는 광주석재(대표 이종선)가 담당했다. 사적비의 규모는 8척(尺) 비로 귀부, 비신, 이수부의 전체높이는 4m에 달하고, 건립추기비는 비신이 2.5척(尺) 비로 기단부, 비신, 가첨석의 전 높이는 210cm에 달한다. 이비로 공의 애환을 달래고 후손이 창성하기를 기원한다.

2011 신묘년 7월 25일 <기사제공 靑庵 金詳浩 (書)>

忠武公 金應河 將軍 墓域 重修 告由祭 舉行

안동김씨 부사공파종회(회장 김태호)에서는 금년 5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충무공 묘역에서 파종회 고문 김재은, 김규장 남과 호주에서 참석하신 김종호 남, 카이스트 김용덕 공학박사 등 문중 남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고유제를 올렸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에 계신 파종회 종인 여러분이 보내 주신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과보고를 한 후 초헌관에 종손 종호, 아헌관 재철, 삼헌관에 규장씨 등이 차례로 봉헌하였다. 특별히 봉회 대종회장께서 태운 사무총장을 통해 금일봉으로 성원해 주셨다.

요동백 충무공 김응하 장군 묘역은 오랜 세월동안 많이 훼손되고 장군 묘소 담지 양게 초라하여 금년 3월18일 파종회에서 묘역을 중수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됨을 계기로 모금활동을 시작하고 업자 선정을 서둘러 4월말 착공, 5월 7일 마무리되어

금일 준공 고유제를 올리게 된 것이다.

병사공문중 2,200만 원 등 각 문중과 종중원들의 성금 4,300여 만 원의 경비를 들여 중수한 묘역은 대형 비석을 현 시대에 맞는 글로 바꾸어 건립하였고 사진과 같이 대형 돌레석과 장군석 1발을 세웠으며 묘역을 넓히고 사초를 잡수었다.

충무공 김응하(金應河)장군은 무과에 급제하시고 선천군수 재임시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강홍립 도원수의 좌영장 겸 평안도 조방장으로 요동에 출병하였으나 도원수가 항복한 후 홀로 수하 장병을 이끌고 끝까지 싸우다 순절하였다. 명나라에서는 요동백으로 추증하였고 조선조에서는 영의정으로 추증하고 불천위하도록 하였고 비문은 문정공 송시열이 짓고 영의정 김수항이 썼으며 묘지명은 영부사 이유원이 지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해동명신록과 충렬록에 기록되어 있다.

<부사공파종회 총무 태형 제공>



* 陽炁堂 金泰龍 先生 功績碑 除幕 *

按廉使公派 進士公 宗中에서는 6월 18일(토요일) 11시 충북 청원군 남이면

상발리 先塋에서 김태룡 전 국회의원의 (대종회 안립사공파종회 고문, 안립사

공파 수도관종회 회장)의 공적비 제막행사를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다.

聖會 前 대종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제막행사는 慶會 진사공종회 총무

의 경과보고, 내·외빈이 함께한 제막, (翼)좌회 박사의 비문낭독, 유제연 전 국회의원의 축사, 태문 안립사공파 종회장의 축사, 태룡 씨의 답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준공식에는 한병기, 유제연, 김창환, 정진길 전 국회의원 등 다수의 외빈과 태영 전 익원공파종회장 등 서울, 청주, 내관 등에서 안동김씨 종친들이 참석하였고 태룡씨의 주관으로 2009년 준공된 내관소재 진사공 재실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서울 지구에서 참석한 인원은 귀경길에 신라시대에 놓았다는 진천에 소재하고 있는 농다리를

관람하였다.

진사공 종중 묘역 내에 세워진 공적비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업구역 내에 모셔져 있던 선조님들께서 영면하실 묘역을 지극정성으로 조성하여 모신공로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민주화 국가유공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빛나는 업적을 후세에 알리고자 진사공파 각 문중에서 발의하여 건립한 것이다.

경희 진사공종중 총무제공



..... 독립유공자 김정득 선생 추념비 건립 제막

지난 7월 21일(목요일) 오전 11시 충남 서산시 부석면 '독립유공자 김정득 선생 추념비 건립위원회(위원장 리찬구)'에서는 300여 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안동김씨 김정득(金丁得 죽보명 김인회)선생 추념비 건립 제막행사를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맹영옥 건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경과보고, 리찬구 위원장의 추념사, 유족대표 김태동의 답사, 유상곤 서산 시장과 김한성 서산시 의회 의장의 축사와 제막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날 제막행사에는 대종회 태운사 무총장, 태문 안립사 공파종회 회장 등 종친 40여 명이 참석하여 제막행사를 축하하였다. 독립유공자 김정득 선생은 안립사공파 군자 김정공 자손으로 병자호란 당시 성천부사로 적에게 항복하지 않고 모병과 군량을 조달하다 다음 해 정월 화를 당한 증 이조판서이며 왕명 정려문을 하사



받은 시호 민숙공 휘 언(諡 愍肅公 諱 瑢)의 7대 長孫으로 만세운동 당시 20세였고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 중 가장 어린 나이로 주동이 되어 "살아서는 설 곳이 없고 죽어서는 묻힐 땅도 없다. 이 원수를 갚지 않고 어찌하고! 각인은 일심동체 힘을 다하여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를 갚아 내 나라를 독립하자"고 앞에 서서 만세를 높이 외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태90도(가죽을 꼬아서

만든 긴 끈으로 90번 때리는 것)등의 고초를 겪었고 그 후 유증으로 평생을 편치 않은 여생을 보냈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1971년 72세로 생을 마쳤다. 사후 재판 기록 등이 밝혀져 2010년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추서되고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어 서산시 부석면민의 이름으로 추념비를 세운 것이다.

〈서산시 태안군 종친회장 김종희 제공〉

임란공신 추모대제 봉행

지난 5월 15일(일요일) 오전 11시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소재 호국사(護國祠)에서 제419주기 호국대제가 250여 명의 많은 참제원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초헌관은 보령시장을 대리하여 이홍집 보령시 부시장, 아헌관은 유영렬 임란공신충의선양회장, 종헌관은 강연범 금천강씨 종손이었다. 호국대제는 임란공신충의선양회 주관으로 매년 봉행되고 있다. 호국사에는 임란공신 406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우리 안동김씨는 원주성에서 순절하신 (提)문숙공 김제갑(文肅公 諱 梯甲), 진주성 전투의 영웅 충무공 김시민(忠武公 諱 時敏), 충주 탄금대에서 순절하신 충민

공 김 흠(忠愍公 諱 欽)세분이 배향되어 있다. 이날 대제에 익원공파에서 명회 전 대종회부회장, 재관 충민공종회 회장, 재택 충민공종회 총무 내외가 참여하였다.

재택 충민공종회 총무 제공



백범 김구 선생 제62주기 추모제 거행

지난 6월 26일(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백범기념사업회의 주최로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 서거 제62주년 추모제를 거행하였다. 추모제는 백범기념사업회 이남헌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국민의례에 이어 김신 백범기념사업회회장의 추모사, 국가보훈청장, 독립협회장, 광복회장의 추모사, 각계 대표의 헌화 순으로 거행되었다.

이날 추모제에 봉회회장, 선회익원공파종회장이 참여하여 종친대표로 헌화 하는등 30여명의 종친이 참여하였다. 특히 전남 보성에서 대호군공파 종인 네 분이 참여하였는데 보성 쇠실마



을에는 백범 선생께서 일시 은거한 사실이 있어 종친들의 힘으로 백범은 거기기념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문 및 회장단 연석회의 개최

지난 5월 11일(수요일) 대종회 회의실에서 안동김씨대종회 고문 및 회장단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2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회장인사와 사무총장의 정년도 및 금년도 업무보고에 이어 현안인 충렬공 탄신 800주년 행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있을 경우 행사의 규모를 크게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고 도철의공(휘 혼) 전적비 관리에 대하여는 연기군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단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2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회장인사와 사무총장의 정년도 및 금년도 업무보고에 이어 현안인 충렬공 탄신 800주년 행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있을 경우 행사의 규모를 크게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고 도철의공(휘 혼) 전적비 관리에 대하여는 연기군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대종회 이사회의 개최

지난 6월 3일(금요일) 대종회 회의실에서 대종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성원보고, 국민의례, 회장인사, 대종회 업무보고, 안전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장 인사 후에 사무총장이 정년도 및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였고 안전토의에서는 충렬공 탄신 800주년 행사에서 종

중부담을 일원으로 하되, 대종회 예산에서 4,000만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각 파종회 또는 개인의 성금을 모아 충당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행사 추가하거나 행사의 규모를 크



게 하도록하며 800주년 추모제 행사 추진위원회의 인원과 구성을 대종회장에게 위임하였다.

안립사공파 수도권종회 제4회 정기총회 개최

안립사공파 수도권종회는 제4회 정기총회를 지난 6월 11일(토요일) 11시 서울 독섬 소재 서울숲에서 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용주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국민의례, 인사소개, 회장인사, 내빈축사, 안전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봉회 안동김씨대종회장, 중목 안동김씨판서공종회장, 태문 안립사공파종회장, (文)재호 원

로종친, (郡)재구 판서공종회 재무이사, 재성안립사공파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축하해주었다. 태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종회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자면서 특히 기금확보에 노력하여 본 종회 설립 목표 달성에 힘쓰자고 하였다. 봉회 대종회장은 축사에서 수도권종회를 창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달

라고 하였고 중목 판서공종회장은 축사에서 다 같이 단결하고 화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종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다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어 안전토의에서는 집행부의 의견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용주 안립사공파수도권종회 총무제공



.....도덕(道德)이 허물어지면 나라가 허물어진다.....



▲ 필자김광호

이 글은 「빛지고 저승에 가기 싫다고 한 사물노인」에서 저지의 송인을 받아 전제한 것입니다. 글을 쓰신 김광호 도평의공파종회장은 의성출생으로 의성향교전교, 박학파부회장, 의성도서관장, 의성신문주필이며 도산서원과 국학진흥원에 출강하고 있다.
(편집자 주)

송(宋)나라의 재상(宰相)으로 노국공(魯國公)에 봉해진 범질(范質)이라는 명신이 있었다. 그에게는 딸단 공무에 종사하는 조카 고(杲)가 있었다. 고는 삼촌에게 아뢰어 벼슬의 품계를 올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범질이 다음의 시를 지어 조카를 훈계하였다. 이는 소학의 가언(嘉言)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그 글을 옮겨 적으니 모두들 한 번쯤 읽어보고 그들의 처신을 살펴볼 일이다.

첫째, 너에게 몸 바로 잡는 법을 배우라. 경계하노니 효도와 공경을 먼저 함만 같음이 없다. 화열하게 부모와 어른을 받들어 감히 교만하거나 함부

로 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잠시라도 반드시 이에 따르라 하였다

둘째, 너에게 녹(祿) 구하는 법을 배우라. 경계하노니 도(道)와 예(藝)를 부지런히 함만 같음이 없다. 일찍이 격언(格言)을 들으니 배워서 여력이 있으면 벼슬한다 하였으니 남이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배움이 지극하지 못함을 근심하여야 하느니라.

셋째, 너에게 부끄럽고 욕된 일 멀리 하기를 경계하노니 공손하면 예에 가깝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며 상대방을 먼저 하고 자신을 뒤에 할 것이니라. 시경(詩經)의 상서(相鼠)와 모치(茅?)에는 예가 없는 사람을 풍자하고 비판하였느니라.

넷째, 너에게 방탕하고 성글지 말기를 경계하노니 방탕하고 성근 것은 단정한 선비가 아니다. 주공(周公)과 공자(孔子)께서는 밝은 가르침을 남겼거늘 제(齊)나라와 양(梁)나라의 풍속으로 실속없는 담론을 숭상하니 남조(南朝)에서는 팔달(八達)이라 일컬어 천 년토록 역사를 더럽혔느니라.

다섯째, 너에게 술 즐기지 말기를 경계하노니 그것은 다만 미치게 하는 약이요, 아름다운 맛은 아니다. 삼가하고 돈후한 성품을 바꾸어서 흥취하고 음

흥한 무리가 되게 하나니 예나제나 패망한 자를 일일이 모두 기억할 수 있느니라.

여섯째, 너에게 말 많이 하지 말기를 경계하노니 말이 많음은 여러 사람이 꺼리는 바이다. 진실로 긴요한 자리에 삼가 하지 못하면 재액이 이로부터 시작된다. 옳다 그르다하며 할뜰고 칭찬하는 사이에 다만 족히 몸에 누가 될 뿐이 나라.

일곱째, 온 세상이 사람 사귀는 중시하여 금란계(金蘭契) 맺기를 좋아하는데 성냄과 원망이 용이하게 생겨나서 풍파가 금방 일어난다. 그러므로 군자의 마음은 깊고 넓어 담박함이 물과 같을 것이니라.

여덟째, 온 세상이 받들어 주는 것을 좋아하여 으시대면서 의기를 돌구나니 떠받드는 자가 너를 노리게로 여감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이 미워하기를 추악한 사람처럼 하였느니라.

아홉째, 온 세상 사람이 사치와 멋을 중시하여 속세에서 기게 높고 의리 있다고 말하느니라. 남을 위하여 급하고 어려운 일에 달려가 왕왕 감히고 구속됨에 빠지나니 이때문에 마원(馬援)은 글로써 은근히 여러 제자들을 경계하였느니라.

열번째, 온 세상이 청백함을 천하게 여기고 몸을 봉양함에

화려함과 사치함을 좋아한다. 살찐 말에 가벼운 갑옷을 입고서 의기양양하여 마을을 지나가니 비록 시장의 아이들에게 부러움을 받으나 도리어 뜻 있는 사람에게는 천하게 보이느니라.

나는 본시 나그네 사리의 신하로서 요순의 다스림을 만나 지위는 높고 재주는 미치지 못한다. 근심스럽게도 걱정과 두려움을 품어 깊은 연못가에 선 듯 얽은 얼음을 밟은 듯 행여나 떨어질까 두려워하니 너희들은 마땅히 나를 민망하게 여겨 죄를 더하게 하지 말라. 문을 닫고 종적을 감추어 목을 움츠리고 명예와 권세를 피하라. 권세와 지위는 오래도록 유지하기 어려우니 어찌 반드시 믿을 수 있겠는가. 대저 사물은 성하면 반드시 쇠하고 융성함이 있으면 다시 또 폐함이 있으니 속히 이루어진 것은 견고하지 못하고 빨리 달리면 넘어짐이 많다. 활짝 핀 정원 안의 꽃은 일찍 피었다가 도리어 먼저 시들고 더디게 자라나는 시냇가의 소나무는 울창하게 늦도록 푸름을 머금는다. 부여받은 운명에 빠르고 늦음이 있으니 청운(靑雲)은 힘으로 이루기가 어렵다. 말을 붙여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조금씩 나아감은 헛된 일일 뿐이다.

위의 글은 훈계의 전문이다.

선인들은 자질을 이와 같이 가르쳤다. 요즘 우리나라의 교육은 혹자들이 말하기를 과일 따먹는 법만 가르치고 나무를 다듬고 가꾸고 복주고 시비하는 데는 소홀하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한 취직 교육만 시키고 인간성 교육은 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청소년은 도덕 교육을 어른은 선비정신을 길러야 할 때이다. 선비정신이 결여되면 도덕적 혼란이 일어난다. 도덕적 혼란은 경제적 위기보다 군사적 위기보다 무섭다. 그것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불변이응만변(不變而應萬變)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 만물이 다 변해도 도덕적 진리는 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부강한 나라보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보다 문화적 수준이 높은 나라가 되고 싶다고 김구(金九)선생은 주장했고 견이사의(見利思義)하고 견위수명(見危授命)하라. 이익이 눈앞에 있으면 의리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목숨을 주라 하고 안중근(安重根)의사는 여순(旅順) 옥중에서 역설하였다. 인의와 도덕이 허물어지면 나라가 허물어진다. 남의 앞에 나서 이름을 구하지 말고 물러서서 죄를 피하지 말라. 이것이 선비정신이다.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 5. 1- 7. 31)

◎ 평생회비

• 20만원: (文)윤식(청주) (提)철수(서울)

計: 400,000원

◎ 찬조금

• 10만원: (鄭)재화(서울)

• 5만원: (典)승희(영기) (鄭)영희(용인) (鄭)광희(대전), 용해(인천)

• 3만원: (鄭)재환(서울)

• 2만원: (鄭)노수(서울)

計: 350,000원

◎ 통상회비

• 10만원: (典)홍식(광주) (正)원식(강릉)

• 5만원: (鄭)우용(김포)

• 3만원: (典)경희(서울) (鄭)영수(서울) (提)태홍(서산)

(按)재선(김천), 경민(대전), 재관(용인), 재홍(대구), 영수(양주),

이회(서울), (鄭)재복(당진), 창식(광주), 수돈(서울), 용희(창녕), 태준(분당), 윤희(안성)

• 2만원: (密)재국(서울) (鄭)홍목(평택), 재경(서울), 호영(평창), 두희(대전)

(典)수영(대전), (鄭)수일(군산), (文)양희(대구), (安)선호(하남)

(鄭)해수(안동), (大)성무(보성) (提)만수(부산), 규남(외정부)

(按)태은, 상연(서울), 재욱(대전), 정희(원주), 관희(광주)

(鄭)태호(충주), 재택(논산), 원희, 우희(서울), 태근(청주),

재욱(용인), 상용(성남), 승묵(대전), 창희(의성), 봉희(서울), 진창(대구),

수덕(정읍), 찬식(구미), 정준(인천)

• 1만원: (文)재희(서울)

計: 1,350,000원

◎ 10억 성금

• 50만원: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종친회

• 10만원: (提)태완(전안) (按)태원(괴산)

計: 700,000원

종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본 대종회보는 종친 여러분께서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원고는 연간 접수하고 있사오니 많은 제출을 바랍니다.

2. 대종회 통상회비는 연20,000원 평생회비는 200,000원 이오니 금년분 회비 마십 종친께서는 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대종회보에 광고 게재 하실분 연락 주시면 협의 후 게재해드립니다.

4. 대종회보에 게재되지 않은 족보발행 권유나 도서류 판매 등은 시기행위(詐欺行爲)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종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종회 기금 10억 모으기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2009년 11월부터 시작한 대종회 기금 10억모으기는 지금까지 8천 4백여만원(예금이자 포함)의 성과가 있었으나 근래에는 그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또한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그 추세가 변질될 여지가 없으므로 금년 10월 31일을 끝으로 마감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참여하지 못한 종친께서는 기간 내에 성의를 보여주셔서 당초 목표금액의 10분지 1이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납입계좌

국민은행 356201-04-132759

농협 351-0222-3309-83

예금주 안동김씨대종회

예금주 안동김씨대종회

香田園藝

경조화환 · 화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448-21

TEL: 02-445-9777, 6888,

02-783-3166

FAX: 02-445-6999

H.P: 010-2490-0707

전국 꽃배달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재균

